



국제와이즈멘 전라지방 슬네클럽, 자장면 나눔 봉사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동장 최용신)에서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전라지방 슬네클럽(회장 김후경)은 지난 20일 '행복회포차'에서 홀로 어르신 100여 명에게 자장면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

슬네클럽은 내 동네부터 봉사를 시작하는 뜻을 모아 구성된 클럽으로, 2023년부터 관내 홀로 어르신들에게 꾸준하게 자장면 나눔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어르신 건강을 위한 자장면 나눔 봉사는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라고 관내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자장면을 제공했다.

김후경 슬네클럽 회장은 "송천2동 지역 내 어르신들께 웃음과 기쁨을 전할 수 있어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용신 송천2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나눔봉사에 귀감이 되신 슬네클럽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SBS 내일은 태권왕, '태권도원 편' 방송

24·31일 태권도 스타 이대훈·오혜리·정재은·나태주·박태준 등이 지도자로 출연

SBS 태권도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태권왕'의 태권도원 촬영분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일요일 오전 9시에 SBS 스포츠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국가원, 대한태권도협회 등과 함께 '내일은 태권왕' 제작을 지원하며 국가 태권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7월 27일 첫 방송 후 5화와 6화가 방송되는 이달 24일과 31일에는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에서의 훈련과정을 담은 과정이 방영되는 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에서 지원한 4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100명의 어린이들이 태권도원에 모여 이대훈과 오혜리, 정재은, 나태주, 박태준 등 태권도 스타들이 지도자로 총출동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태권도원 촬영에서는 T1 경기장과 태권전 명인관을 비롯해 전통 무예수련장 전당대 등 태권도원 곳곳을 돌며 특별한 루트 오디션 과정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올해 총보스년체육대회에서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충청권



태권도 강사로 떠오르고 있는 청주 개신초등학교 태권도 선수 등과 경기를 펼치는 과정 역시 5화와 6화에 담길 예정이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내일은 태권왕" 방송을 통해 28일부터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그랑프리챌린지 범용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남원시, 무인 캔·페트병 회수기 본격 운영

남원시는 동부노인복지관에서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무인 캔·페트병 회수기 각 1대씩, 총 2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회수기는 복지관 정문 야외마당에 설치돼 접근성이 뛰어나며, 연중무휴 24시간 개방되어 어르신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방법도 간단하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내용이 비워지고 라벨이 제거된 무인 페트병이나 캔을 해당 투입구에 넣으면, 장비에 탑재된 인공지능(AD)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수량을 계산하고 압축 처리까지 진행한다.

복지관은 이번 장비 설치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쉽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호성동, 무한대때 호성우이점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동장 정문구)은 21일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한 무한대때 호성우이점(대표 최동기)을 방문해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매일 3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업소이다.

착한가게 업소들이 내 기부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 취약대상자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착한가게를 이용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간접기부로 이어지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혁신실험, 2025년 어부바멘토링 문화체험활동 실시

전주혁신실험(이사장 임승기)이 낙수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재홍)와 '2025년 실험 어부바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실험 어부바멘토링은 전국의 실험과 인근 아동복지시설의 결연을 통해 실험직원이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가 되어 건전한 성장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 실험 사회공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단위조합 실험, 아동복지사실이 2018년부터 10년째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전주혁신실험과 낙수지역아동센터는 3년간 협력했으며, 올해 4월부터 협약을 체결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형태와 경제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전주혁신실험 멘토 2명과 낙수지역아동센터 아동 20명, 인솔교사 4명이 참석해 완주군 구이면 아이쿱티파크 아미존을 탐방했다.

현재까지 전주혁신실험과 낙수지역아동센터의 어부바멘토링은 5회까지 진행되었으며, 나만의 실험만들기, 민주주의에 기초한 이사장선거 진행, 금융회사의 종류 및 예금상



품 가입하기, 보이스피시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다음 9월 20일에는 6회기 전북현대 축구경기 관람이 진행된다.

임승기 이사장은 "올해로 실험 어부바 멘토링을 5년째 참여 중이다. 재무적 성장과 더불어 우리 지역사회를 향상시키고 보고 행하는 것이 실험의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부안군 관광과,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갯기 동참

부안군 관광과(과장 박현경)는 지난 19일,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재)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갯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인재를 위한 후원 모금에 힘을 보탤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들의 자발적 후원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범군민 후원 돌려 운동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부안군 관광과는 부안의 천혜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홍보 등 종합적인 관광 활성화 사업에 힘쓰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새마을지도자 동충동협의회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는 21일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회장 안홍선) 및 부녀회(회장 한영희)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집 내부 청소와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대상 가구는 건강 문제로 인해 집안 위생 관리가 어려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은지역사랑봉사단, 진안 흰마실에 성금 400만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은 행정장 정원호 노조위원장 등 진안군 백운면 소재 흰마실에서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지역사랑성금으로 지난 4월 총 지원규모 60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15개 기관을 선정하고 각 기관별 기부금 전달식을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3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흰마실'은 장애인 거주 공간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흰마실은 이번 지역사랑성금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한정된 예산으로 보수 및 관리가 어려웠던 노후화 된 소변기와 고장 난 센서를 교체하고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응급사고 예방 및 안전과 편의성 등을 확보하게 됐다. /오상근 기자



남원 산내면 삼화마을 경로당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남원시는 주민복지와 희망복지지원팀과 산내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0일 삼화마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현장 방문 사업이다.

이날 복지상담실에서는 10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 및 건강관리 상담을 진행했으며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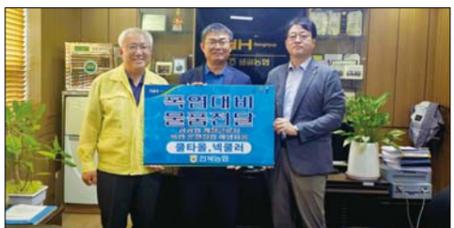


남원 죽항동, 도자 마블링체험 성료

남원시 죽항동 행정복지센터는 8월 20일,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도자 마블링체험 '물 위에 피어나는 나만의 도자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체험은 남원국제도자예술연구센터(대표 김광길)가 주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후원하고, 고지영(高世英) 교수의 재능기부로 마련. 참가자들은 마블링 기법을 활용해 세계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도자 작품을 직접 제작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 김광길 대표는 "앞으로도 죽항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정읍시지부, 공공형근로자 폭염대비 물품전달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는 21일 생골농협(조합장 허수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운영질환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쿨타올·넥쿨·그늘막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이 함께 운영하는 '이노형 농촌인력증가사업'을 통해 추진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농촌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지역농협이 이들을 단기계약직으로 고용해 농가에 일당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정부사업으로 생골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일손부족 문제에 앞장서고 있다.

김순기 지부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농업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기자



김제시 평생학습관 하반기 교육 개강·강사간담회

김제시(시장 정성주) 평생학습관 하반기 교육과정이 오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6주간 운영된다.

이번 교육 과정은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강신청을 받아 3개 분야 40개 강좌에 688명의 수강생이 모집됐다.

취미와 여가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9개 과목 및 시민역량 개발 및 자기능력 강화를 위한 인문교양분야 24개 과목, 일정수준 이상의 경험을 가진 학습자들을 위한 심화형 교육인 인문·예술통합마스터클래스 6개 과목 총 40개 과목으로 강좌를 구성했으며, 파크골프 A, B반, 골반다이어트요가, 다이어트스플랜스, 원어민 영어회화, 스마트한 문해탐구생활 및 e-로운디지털생활문화 입문 심화 등의 교육 과목을 신설해 보다 다양한 강좌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원활한 강좌 운영을 위해 개강 전인 21일 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제=곽태 기자



김제시평생로타리, 제일복지관에 쌀100kg 등 후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평생로타리클럽(회장 김의성)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목적으로 김제시평생로타리클럽에 쌀100kg과 세탁기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전달된 쌀은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며 세탁기는 복지관 내 긴급 세탁지원 서비스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생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평생로타리클럽 김의성 회장은 "지평선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